

갈등에 대한 일 예비적 연구*

원호병원 신경정신과 ** 이화여대의대 신경정신과학교실 ***

연 규 월 ** · 이 근 후 ***

= ABSTRACT =

A Preliminary Study on the Conflict

Kyu - Wol Yun, M.D., Kun Hoo Rhee, M.D.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Korea Veterans Hospital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103 Females over 30 years old were interviewed face to face and analyzed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nsity and the nature of conflicts according to each psychosexual developmen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 1) In the age distribution, majority of patients were distributed between 3rd and 4th decade(70%).
- 2) Educational level was relatively high and most of them was graduated from university.
- 3) Socioeconomic status revealed that most of them was thought as a middle class.
- 4) The highest score of mean of intensity of conflict according to age distribution was intensity of conflict in relating to anal personality trait.
- 5) Comparing with age, the highest score was between 40 and 50 years old
- 6) The highest items were dependancy, subordination, passivity in the intensity of conflict in relating to oral personality trait, cleanliness, emotional constructiveness in anal personality trait, identification, guilty in the phallic personality trait.
- 7) As to the conflict relation which occur most frequently, the first is the relation with mother in childhood, and the second is the relation with spouse

* 본 논문의 요지는 1984년 2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월례학술집담회에서 발표하였음.

서 론

인간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각 단계별로 충동이나 소원, 욕구의 좌절로 정신 내부에서 내적 갈등을 초래하여 성격발달에 영향을 주게되고 여러 장애를 초래한다.

갈등에 관해서는 Simmel(1955), Coser(1956), Dahrendorf(1959) 등이 사회철학적으로 분석하여 갈등을 “반대나 적개심”에 의해 규정되는 두 사람의 “상호순응”이며, 각 개인의 목적이나 이해관계, 이데올로기와 관심, 심리적 성향들의 요인이 결합되어 나타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Wittaker(1966)는 갈등을 사회심리학적으로 첫째는 두개의 플러스의 유발성 갈등(approach - approach conflict), 둘째는 하나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유발성 갈등(approach - avoidance conflict), 셋째는 두개의 마이너스 유발성 갈등(avoidance - avoidance conflict) 넷째는 二重 플러스(+) 마이너스(-) 유발성 갈등(double approach - avoidance conflict) 등으로 분류하였고, 두개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일어났을때 망서리거나 동요하거나 혹은 상극하는 상태를 갈등이라 정의하고 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Freud(1920)는 갈등의 근원을 경쟁심과 적개심의 유아기의 정신현상으로 보았고 무의식속에 억압된 性의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고 주장했다(이, 1982). 이(1978)은 무의식의 표현인 꿈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이른바 Jung의 부정적 animus, anima 그리고 원형(archetype)의 인식이 갈등과 관계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Horney(1945)는 갈등을 신경증의 중심으로 보았고 가장 어릴때의 경험과 사회적 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것이 근본적인 갈등을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갈등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존재하는 과정의 하나이며 사회적으로는 인간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서로 투쟁하는 모든 행동을 말하며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으로는 서로 반대되는 욕구, 충동 또는 소원등을 이루지 못할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신내면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최근에는 정신과적으로는 꿈, 전설, 신화속에서 갈등의 양상과 해결을 찾으려는 연구가 있으며 사회학적으로는 종족집단 사이의 갈등, 문학적으로는 소설속에 나오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교육학적으로는 현장탐사를 통해 갈등을 연구해 가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 주로 심리학분야에서 갈등으로 인한 결혼관계, 부모와의 관계, 청소년기의 문제점등 인간관계 측면으로 연구해 가고 있다.

저자는 갈등이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정신현상이기에 그 발생과정과 해소에 관해 한국인의 경우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를 사회조사 방법을 통한 field survey를 통하여 탐색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을 환자의 정신분석 사례를 통해 입증해 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연구의 성취를 위해선 많은 선행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그 가운데 사회정신의학적 자료의 표집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번 연구는 이 표집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한 연구로서 정신성적 발달단계 특성에 따른 갈등의 강도를 측정하고 분석해 봄으로써 본 조사의 질문지 작성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시내 서대문 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30대 이상 주부층 무작위로 103명을 선택하여 1984년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방문 면접을 실시하였다. 질문은 저자와 질문취지에 미리 합의훈련을 쌓은 대학원생 5명이 1시간~1시간 30분동안 개별 면접을 하였고 Krout와 Tabin(1954), Gottheil(1965)의 항문성 성격척도, 구강성 성격척도를 측정하는 186문항을 각각 정신성적 발달단계중 구강기, 항문기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된 문항과 여기에 남근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첨가하여 이것을 다시 갈등의 강도를 알아보기 위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각각 25문항씩 7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갈등의 강도가 가장 강할때를 5점, 비교적 강할때를 4점, 보통일때 3점, 갈등을 느끼지 않는편 일때를 2점,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을때를 1점으로 하여 수집된 자료를 사회학적 방법으로 coding하여 처리하였고 표집원인이 103명이므로 전체적으로 백분율과 동일하여 그대로 숫자처리 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1) 연령은 40대와 30대가 각각 40, 33명으로 전체의 70%, 50대가 19명, 20대가 11명이었다.

(2) 교육정도는 대학교졸업이 50명, 고졸이 36명, 중졸이 14명, 국졸이 3명의 순이었다.

(3) 현재 가정형편은 ‘보통이다’가 74명, ‘잘사는 편이다’가 22명, ‘못사는 편이다’가 7명으로 대체로 자신을 중류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4) 종교를 가진 사람이 76명, 없는 사람이 27명이었다.

기타 성장지, 부모님 생존여부, 어릴때 가정형편, 남매의 수, 형제서열등을 살펴보았는데 이상의 변수들은 앞으로 본 조사실시때에 의미있는 독립변수로 분석될 항목들이다.

2) 정신성적 발달 단계별로 본 갈등의 강도

(1) 연령별 정신성적 발달 단계, 즉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의 평균점을 보면 항문기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63점, 구강기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는 3.34점, 남근기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는 2.69로 나타났다(표 1).

(2) 20, 30대와 40, 50대로 대별하여 각 단계의 평균점을 비교해 보면 모든 정신성적 발달 단계에서 40 50대의 평균점이 높게 나타났고 구강기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표 1).

(3) 각 단계별 갈등의 특성

① 구강기적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

표 1. 연령별로 본 갈등 강도의 평균

연령	총 평균	20-30대	40대	50대
구강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	3.34	3.31	3.40	3.29
항문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	3.63	3.46	3.71	3.83
남근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	2.69	2.63	2.76	2.69
총 계 (명)	103	44	40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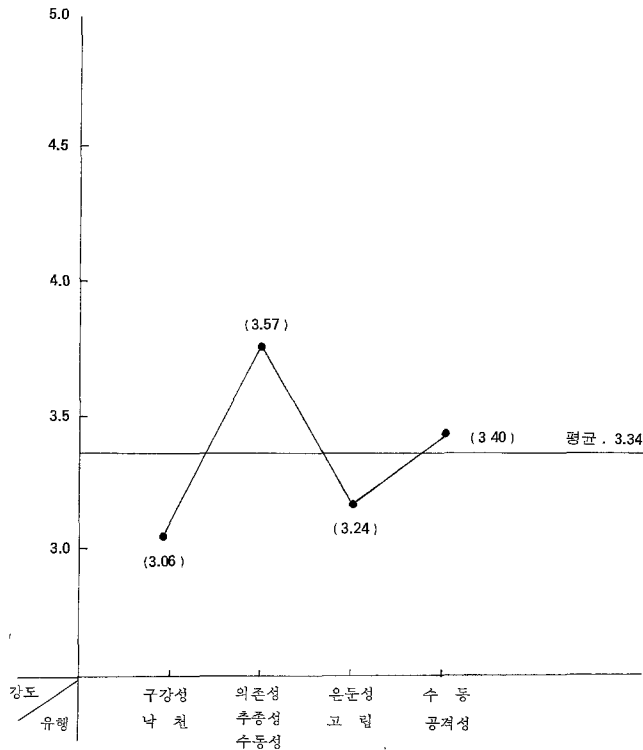


그림 1. 구강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 평균점.

은 구강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25개를 구강성 낙천, 의존적 추종성, 은둔성 고립, 수동공격성의 4 항목으로 묶어 보았을때 의존적 추종성, 수동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57, 수동공격성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40, 은둔성 고립과 연관이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24, 구강성 낙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06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각 항목별중 갈등을 가장 많이 느낀 문항은 은둔성 고립을 나타내는 문항 4중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맺힌다'가 M=4.08로 가장 높았고, 의존성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중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한데 혼자있게 되면 왠지 불안합니다'가 1.95로 가장 낮았다.

② 항문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에서는 항문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25개를 과민성 확인, 재확인, 실용성 인식, 완벽성 타인배척성, 청결성, 정서적 협착, 수집성 고립으로 나누어 보았을때 청결성 또는 정서적 협착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91, 완벽성 타인 배척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71,

과민성 확인, 재확인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65, 수집성 고립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63, 실용성 인식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60으로 나타났고(그림 2) 완벽성·정확성·타인 배척성의 7 문항 중 '다른 사람으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보면 화가난다'가 각각 4.43으로 가장 높았고 '남들보다 비판적인 말을 많이해서 비난을 받지않는 편이다'가 2.37로 가장 낮았다.

③ 남근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를 보면 남근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문항 25개를 성욕·남근선망, 에디프스적 갈등, 공격성 파괴성, 이니세티브·호기심, 동일시·죄책감으로 묶어 보았을때 동일시·죄책감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20, 이니세티브·호기심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2.77, 공격성·파괴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2.56, 성욕·남근선망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2.25, 에디프스적 갈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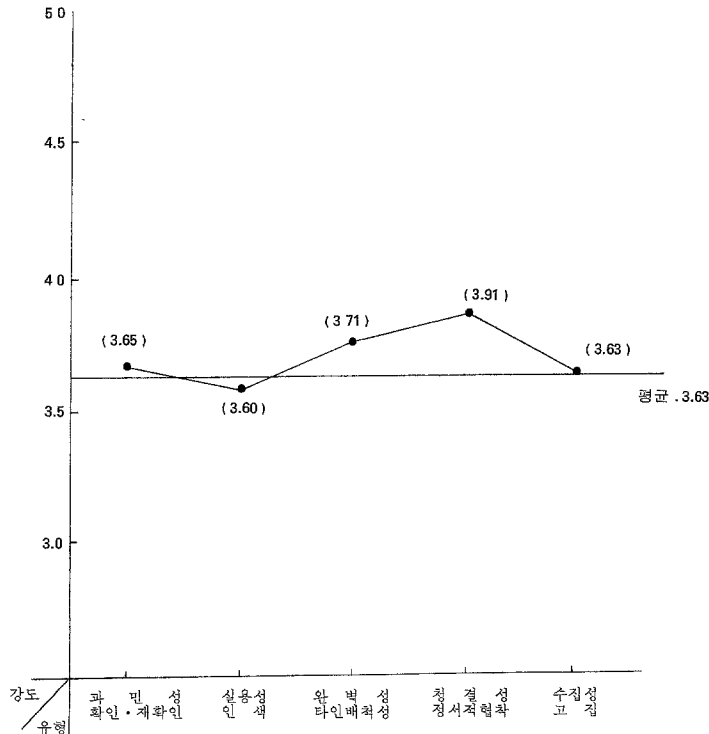


그림 2. 항문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 평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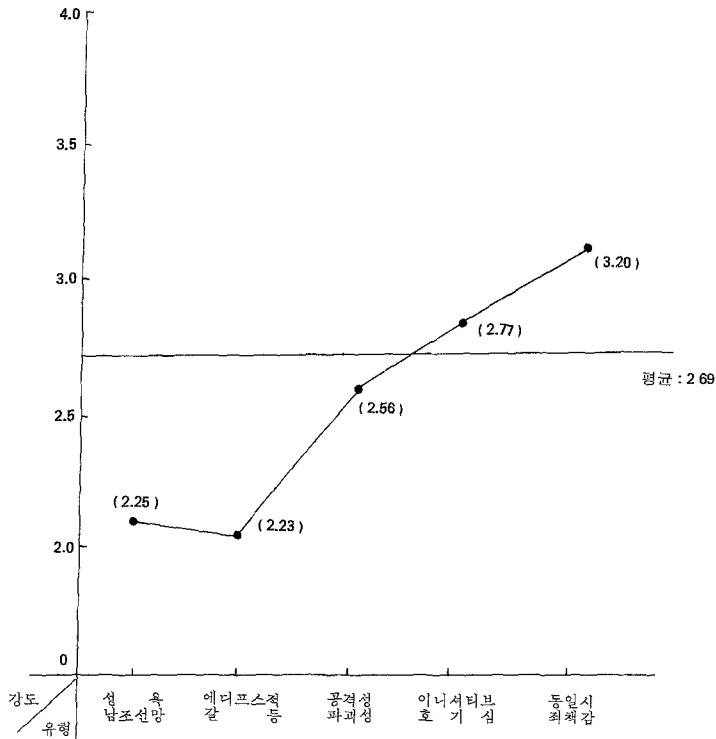


그림 3. 남근기적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 평균점.

표 2. 가장 갈등을 많이 느낀 관계

관계	과거	현재
어릴적 아버지	14	-
어릴적 어머니	25	-
배우자	16	3
현재 아버지	1	2
현재 어머니	3	-
시아버지	3	2
시어머니	13	5
남자친구	-	-
여자친구	2	1
기타	-	1
무응답	26	-
계	103	-

배우자와의 갈등이 20.8%,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16.9%로 나타났다(표 2).

고찰

갈등은 철학적·심리적·사회학적·문학적 모든 분야에서 각기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정신분석적으로는 갈등이란 서로 반대되는 용납이 안되는 욕구·충동·소원등에 의해 야기되는 정신적인 투쟁이라고 있다(Leland, 1969).

Freud를 비롯한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에디프스 갈등이 개인의 정신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신현상이고 인간의 원초적 갈등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김, 1968, 이, 1963)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성격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에 저자는 갈등의 기본적 바탕을 정신분석적 토대로 다루어 보았고 이전에 질문에 대한 번수를 증명하기 위해 Pretest를 한 바 갈등은 ① 가슴속에 맺힌 한이다, ② 타인들로부터 무시당할 때의 열등감이다, ③ 좌절감, ④ 실망, ⑤ 불안, ⑥ 화병, ⑦ 고민, ⑧ 피로움, ⑨ 싸움, 다툼, ⑩ 의견충돌, ⑪ 격

(그림 3).

(4) 가장 갈등을 많이 느낀 관계는 어릴때 어머니가 응답자의 32.5%, 아버지가 18.2%로 어릴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50.7%로 가장 많았고

정, ⑫ 속상하다, ⑬ 자신이 없다 등의 범위의 개념을 토대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향문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3.63, 구강기적 특성이 3.34, 남근기적 특성이 2.69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30대 이상의 여자에서는 학문기적인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연령등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이들의 유아기시절은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성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의 효사상, 선비정신, 윤리 규범등으로 인한 제한된 여건속에서 성장하여 문화체제에 순응하는 연령 특유의 성격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강(1979)이 한국인 향문성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향문성 특성이 보다 높음을 문화정신의학적 배경으로 설명한 바 있고 Kelleher(1972)도 여자에서 강박성격이 보다 높았다는 보고를 민족, 사회, 지역, 가족에 따른 문화정신의학적으로 보고한 바 있다.

조사대상지역이 한국의 전통이 비교적 유지되어 있는 중산층이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일반적 가정은 전통적 유교사상으로 여성을 내적 가정활동에만 제약시켜 왔으며, 수동성, 인내, 순응, 겸약 및 배타성을 요구해 왔고 또 이에 대체로 복종해 왔다는 점으로 향문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는 갈등의 강도가 높았음을 반영해 줄 수 있다고 보겠다.

향문기 특성과 연관된 항목별로 청결성·정서적 협착의 특성과 연관된 갈등의 항목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강(1979)이 향문성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남녀 공히 강박적 성향을 보인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음 두번째로 갈등의 강도가 높게 나타난 구강기적 특성에 관해 고찰하면 항목중 의존성·수동성·추종성이라 생각되는 갈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바 이는 한국인의 성격은 수동적이고 무사 태평하고 낙관적인 구강성 성격이라고 보고한 강(1979), 윤(1978), You(1973)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You(1973)는 한국인을 서양인과 비교하여 한국인은 첫째 모자관계가 생물학적, 심리학적 단위로 공부하는 관습, 둘째 이유가 늦고 대소변 가리는 훈련이 늦으며 엄격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셋째 한국의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유교와 불교가 동보다는 정, 위보다는 무위, 유보다는 무를 강조하는 문화적 전통으로 인하여 한국인 특유의 수동성을 해석한 바 있다.

Freud는 에디프스 갈등을 강조했지만 인생의 초기 즉 영아기, 소아기가 기본적 성격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라고 했고 Horney도 초기의 근본적 불안이 근본적 갈등을 초래하고 Fenichel(1945)은 갈등은 본능과 자아사이의 투쟁이라고 한 바 있으며 Klein은 정상적인 유아가 첫 6개월에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느낀 불안, 분노, 불만과 분열이 내공, 투사의 방어 기전을 이용하여 심리적 갈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1972)은 shaman은 유아기에 잘 처리되지 못했던 근친상간의 현상을 종교적으로 승화시켜 자기의 모든 정신적 갈등을 해소하지만, 유아기에 있는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종교에 투사함으로써 부모의 image인 신과의 공존적 의존관계를 형성한다고 했고 조(1976)도 효자 효녀전에 나오는 전형적인 효자란 대체로 나약한 자아와 의존적인 성격을 지닌데다가 구강기 수준의 사랑을 받으려고 애쓰는 인간으로 특징 지우고 이들 가운데 효란 자아기능의 일부인 것으로서 본능에서 오는 갈등에 대항하는 방어기제라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때 에디프스 갈등이 인간의 근본적인 원초적 갈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보다 앞선 단계, 즉 구강기 수준의 부모와의 이별로부터 갈등의 근원이 온것이 아닌가하는 것을 본 조사에서 의존성 수동성, 추종성이라 생각되는 항목의 갈등의 강도가 높게 나온 점으로 추측해 볼 수 있었다. 각각의 항목중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마음에 맺힌다'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욕구불만, 욕구좌절이 쌓인 갈등의 응어리라고 불리는 한국인 특유의 것일지도 모르는 한과 정신분석적으로 연관지어 볼 수가 있겠다. 이규동은 한과 갈등과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면서 구강기성 특성을 가진 정신내면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고 김(1981)은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맺어진 원한의식, 혈연간의 갈등 등이 한국인 사이에 콤플렉스를 형성하여 한국인 특유의 「한」이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민족정서로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고 한이란 엉켜서 굳어진 힘을, 몸속에 맺힌가 맺히고 응어리지고 명울진 정신적 어혈이라고 정의한 바, 본 연구에서 마음에 맺힌다라는 문항이 높았던 것을 반영하면 갈등을 한으로 표현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도가 낮게 나타난 남근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를 고찰해 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문항에서 갈등의 강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것은 학자들의 주장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성욕, 남근선명, 에디프스적 갈등이라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낮았다는 것을 내면적으로는 표현될 수 있어도 의식수준에서는 性에 대해 금기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윤리관, 도덕관으로 인해

한국인이 성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억압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김(1968)은 에디프스 갈등은 Freud의 이론에 의하면 한 개인의 정신발달에서 원동력이 되는 심리현상이고 한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적 동력이며 이 현상은 세계 어느 민족에나 존재한다고 지적했지만 여기에 관한 찬부의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고 보고한 바 있고 한국문화에서는 한국사회에는 표출된 에디프스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고 대개는 토데미즘속에 깊이 상징화되어 숨어 있는 반면에 최근에 수립되는 살아있는 신화속에는 비교적 잘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이(1963), 조(1976)도 에디프스 복합이 인류 공통의 근원적인 갈등이라는 Freud의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고 특히 조(1976)와 차(1979)는 효의 갈등 상황을 분석한 결과 효행의 원초적 갈등이 에디프스 복합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느낀 관계가 어릴 때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는 보고는 비록 전체적으로 남근기적 갈등의 강도는 낮았지만 에디프스 갈등이 핵심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는 배우자,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많았다는 점도 어렸을때의 해결되지 않은 에디프스 갈등의 연장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김·남(1978)도 정신과 임상에서 고부간의 관계가 정신적 갈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자주 보이고 이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디프스갈등의 연장이라고 보고한 바 있고 과거에는 유교의 삼강오륜이란 윤리적 체제가 강하게 있어 고부간의 갈등이 표현되지 않아 억압되어 순응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대에 들면서 유교의 윤리가 쇠퇴되고 여성의 지위향상, 핵가족등으로 고부간의 갈등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성욕, 남근선망, 에디프스적 갈등의 강도가 낮았던 것은 단지 질문시에 일대일로 얼굴을 대하고 하는 면접이기에 방어하여 의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였고, 또 질문 그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겠다.

본 연구는 정신성적 발달 단계의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를 질문지만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보다 깊은 무의식세계는 다룰 수 없었고, 문항 자체가 반드시 그 단계별 특성을 나타낸다는 확신은 없었기 때문에 취약점이 많다고 보겠으나 갈등의 강도가 성격 단계별로 추정될 수 있었다는 연구만으로도 앞으로 있을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저자는 앞으로 한국인 갈등 발생과정과 해소에 관해 사회학적 조사방법으로 탐색하고 그 특징을 정신치료 사례 연구의 사례중 갈등상황과 연관된 내용을 발췌

하여 정신분석학적으로 입증해 보고자 한다.

결 론

저자는 정신 성적발달 단계별로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를 알아보고자 서울시내 서대문지역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30대 이상 여자 103명을 대상으로 1984년 1월 27일에서 2월 1일까지 6일간 질문지를 사용한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반적 배경

(1) 연령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3명, 40 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2) 교육정도는 대졸이 50명으로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3) 현재 가정형편은 대체로 자신을 중류층이라고 생각하였다.

(4)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 정신 성적발달 단계별 특성을 가진 갈등의 강도

(1) 연령별로 본 갈등강도의 평균점은 항문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남근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가 가장 낮았다.

(2) 연령별로 대비해 보면 모든 단계에서 40, 50대의 평균점이 높았고, 구강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갈등의 강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3) 구강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를 항목별로 보면 의존성, 추종성, 수동성과 연관된 갈등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고 항문기적 특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갈등의 강도에서는 청결성, 정서적 협착, 남근기에서는 동일시, 죄책감이 가장 높았다.

(4) 가장 갈등을 많이 느낀 관계는 어릴때 어머니가 32.5%이었고, 다음이 현재의 배우자로 20.8%이었다.

REFERENCES

- 1) 강달삼: 한국인 항문성 성격에 관한연구. 충남의대잡지, 1979; 6: 114-130.
- 2) 김광일: 한국 정신과환자에서 본 신화적 요소. 신경정신의학, 1968; 7:
- 3) 김광일: 한국 민속극에 나타난 에디프스 갈등. 문화인류학, 창간호, 1968; 24-46.
- 4) 김광일: 한국 사머니즘의 정신분석적 고찰. 신경정

- 신의학, 1972; 11: 121-129.
- 5) 김광일·남정현: 정신과 입문환자에서 본 고부간의 갈등. 신경정신의학, 1978; 17: 27-32.
 - 6) 김열규: 한맥원류. 한국인, 마음의 덩어리와 맺힘, 서울, 主友, 1981.
 - 7) 윤병태: 갈등개념의 기초작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학위논문(석사), 1978.
 - 8) 윤태립: 의식구조상으로 본 한국인, 서울, 현암사, 1978; 88: 236-246.
 - 9) 여영부: 한국동족집단 갈등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학위논문(석사), 1970.
 - 10) 이병윤: 한국신화의 정신분석적 연구(기1). 최신의학, 1963; 6: 593-617.
 - 11) 이부영: 한국인 피분석자의 꿈에 나타난 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 신경정신의학, 1975; 14: 276-287.
 - 12) 이부영: 분석심리학. C. G. Jung의 인간심성론. 서울, 일조각, 1978.
 - 13) 이정균: 정신의학. 서울, 일조각, 1982.
 - 14) 송병혁: 자아개념과 욕구갈등에 관한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3.
 - 15) 조두영: 효자, 효녀전에 있어서 효의 정신분석. 서울의대잡지, 1976; 17: 119-135.
 - 16) 조수호: 한국인 구강성 성격에 관한 연구. 충남의대잡지, 1978; 5: 585-591.
 - 17) 차준구: 한국전설에 나타난 효의 문화정신의학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9; 18: 82-90.
 - 18) Coser, L.: 갈등의 사회적 기능. 박재환 옮김, 서울, 한길사, 1980.
 - 19)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dford California, Standford University Press. 1959.
 - 20) Leland, E. H.: Psychiatric Dictionary, 4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21) Simmel, G.: Conflict, Trans. Kurt H. Wolff, Glencoe, The Free Press. 1955.
 - 22) Fenichel, O.: The Psychoanalytic theory of Neurosis, W. 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1945.
 - 23) Kelleher, M. J.: Cross-national(Anglo-Irish) difference in obsessional symptoms and trait of personality. Psychol. Med., 1972; 2: 33-41.
 - 24) Krout, M. H. and Tabin, J. K.: Measuring personality in developmental terms. Genet. Psychol. Monogr., 1954; 50: 289-335.
 - 25) Gottheil, E.: An empirical analysis of orality and anality. J. Nerv. Mental Disease, 1965; 141: 308-317.
 - 26) Lazare, A., Klerman, G. L. and Armor, D. J.: Oral, Obsrsvive and Hysterical patterns an investigation of psychoanalytic concepts by means of factor analysis, Arch. Gen. Psychiat., 1966; 14: 624-630.
 - 27) You, K. H.: Cross-cultural examinations on the genesis of surface-passivity among Far Eastern Asiatic peoples, 1973; 12: 171-177.
 - 28) Whittaker, J. O.: Introduction to psychology, London, W. B. Saunders Co., 1966; pp. 77-79.